

지역 소식 통

정읍시민장학재단, 지정
기탁금 심의... 전액 승인

정읍시가 기부금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9246만원의 장학기탁금을 전액 승인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91명의 기탁자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기부 접수의 적정성과 목적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액을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이학수 시장을 위원장으로, 우호연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명은 임명직 공무원, 나머지 6명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
코딩 · AI전문인력 양성

정읍시가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로 연결하는 '디지털 스텝업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고용 불균형과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층을 비롯한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코딩·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교육부터 현장실습, 취업까지 연계 디지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 활용 수준의 격차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코딩교육과 AI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나뉘 총 80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코딩 과정은 엔트리코딩과 웹 기초 중심으로 구성됐고 AI 과정은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챗봇 설계 등 최신 기술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코딩·AI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고, 이후 1:1 개별 면접을 통해 초·중학교와 기관, 기업 등에 실습 강사로 파견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자리매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성인·성장기 아동·어르신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28일 개소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부안군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센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지역 건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대상 라인댄스·요가 등 6개 프로그램(7개 반), 성장기 아동 대상 점핑교실·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남성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 밥상 영양교실 등이 있다.

특히 개소 1년 동안 센터에는 일평균 약 64명, 총 1만 3888명의 군민이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에 참여했으며 현재 43명이 프로그램 이용 대기 중으로 꾸준한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하루 5회차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실과 만성질환 위험군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군민 걷기 실천율을 높이는 생생부안걷기동아리, 전 군민 대상 비만·영양·절주·신체활동의 건강생

활실천사삼까지 전방위로 건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50세 이상 군민을 위해 매주 금요일 끝말도 및 기초 건강검사를 통한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당신의 골(骨)튼타임!’이 도입돼 중장년층 건강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관심과 응원이 센터 성장의 지양분이 됐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다짐의 반복”이라며 “그 다짐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1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사전 대비”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 개최... “폐교 등 유휴공간 활용 노력”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1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최근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상저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상저온에 대비한 보온자재 확보, 피해 우려 작물 현장점검 등 사전 예찰과 신속한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54%보다 낮은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



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부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니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 보상과 신속한 영농 재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에 대비해 대상 농가 파악, 지원 인력 구성, 작업 일자 조정 등 농촌 일손 돕기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며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폐교 재산 활용의 법령 적용 관계 및 절차를 명확히 해 지역사회 협력 제고, 생활거점 기능 확보 등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숙지황 판매소비촉진 프로모션’ 진행... 숙지황 소비 ↑

정읍시가 생화차집 등 지역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숙지황 프로모션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성과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시는 생화차집 등 숙지황 사용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숙지황 판매소비촉진 프로모션’이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경영체가 숙지황을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의 약 20%를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경



영체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정읍 특산물 숙지황으로 정성껏 달인 고품질 생화차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후위기 대응 전북 1위 정읍시’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탄소중립 선도도시 박차

정읍시가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에서 전북 시군 중 최고 점수를 받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유호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열고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을 41% 이상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53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이날 보고된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한파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전북 시군 중 종합점수 1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에 참석한 8명의 위원들은 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읍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 것”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자매도시 대표단 ‘청보리밭 축제’ 방문

고창군은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서울 관악구·성북구·송파구·마포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방문은 군의 공식 초청에 따른 축제 행사 교류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공식자매도시 환담회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과 자매도시 대표단이 만나 고창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며, 향후 교류 사업 활성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표단은 고창청보리밭축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만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의 성공적



인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고창군의 대표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참석해 주신 자매도시 대표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고창의 맛과 멋을 느끼고 자매도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고층아파트 외벽도장공 추락사고 발생

부안군 부안을 고층 A아파트 외벽도장 작업 중 추락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 34분께 부안을 고층APT에서 발생했다.

외벽페인트 작업중에 A씨(63)가 15층에 떨어져 인근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밧줄방식으로 외벽을 오르내리는 방식의 로프점검 시스템을 ROPE ACCESS을 이용해 작업을 했다는 것.

특히 정비의 로프가 파손되거나 연결부분 미흡했는지 현장에 설치된 로프와 관련장비일체를 수거해 정밀조

사에 들어갔다.

장비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안전수칙 준수여부, 작업도급 계약관계 등 함께 조사중이며, 현장에 당시 안전감독자나 관리책임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 고층작업의 산업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 위함으로 A씨가 속한 작업안전교육이나 장비점검이 충분이 이루어졌는지 도 조사한다고 한다.

수사진행사항을 부안경찰서에서 도경 형사7팀대로 이송해 수사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